

창업 성공 신화 함께 쓰는 벤처계 막강콤비

현대글로벌컨트롤 & 건국대 벤처창업지원센터

제2의 벤처붐이 조성되면서 벤처계에 화색이 들고 있는 가운데 새싹 벤처들의 기지개가 한창이다. 신생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든든한 조력자가 절실할 터 기술력과 신용으로 승부해 설비자동제어시스템 개발사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글로벌컨트롤(HGC)과 이들의 든든한 도우미를 자처하는 건국대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찾아가 그들의 원원전략을 들어보았다.

◀ (왼쪽부터) 건국대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정지호 총괄 B매니저, 박재홍 B매니저, 현대글로벌컨트롤의 양종석 대표, 송인희 대리, 주광천 대리, 이정민 과장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현대글로벌컨트롤(HGC)의 양종석 대표가 기업을 막치고 나와 창업을 감행한 소박한 이유다. 잘 될 것 같은 분야의 사업에서 한 차례 실패를 맛본 후에야,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분야의 회사를 설립한 그는 사업계획서를 들고 개인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창업 3년 만에 연 매출 15억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구어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현재까지의 매출이 이미 15억에 달한다고 하니 올해 HGC의 행보가 자못 궁금해진다.

“회사 다니면서 제어 쪽 기술을 배웠는데 큰 규모의 발전소에서만 사용하는 이 컨트롤 기술을 일반 건물들이나 화재가 많은 산에 응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물들에는 설비를 컨트롤하는 간단한 기술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화재도 잦고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지요.”

돈을 벌어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다. 돈도 벌고 화재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일을 하게 된 양종석 대표. 창업 초기 그가 찾아다니던 사람은 개인투자자들뿐만이 아니었다. 틈이 날 때마다 발품을 팔아 각 분야의 방화 책임자들과 관리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옥상 물이 새거나, 지하저수조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등의 애로 사항과 24시간 화재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개선·응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부단한 노력으로 회사를 지켜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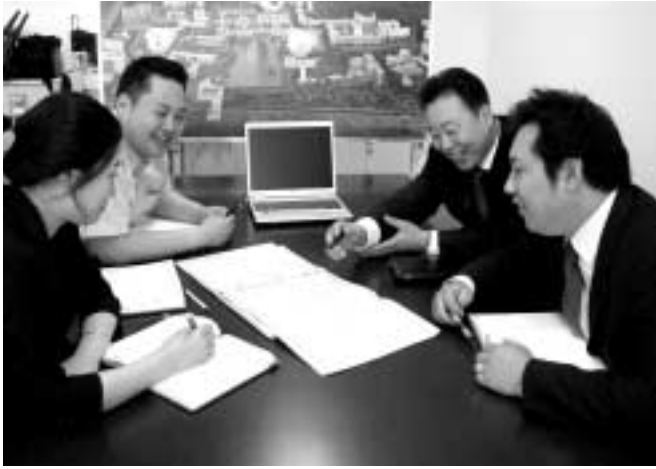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녹록지 않았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창업 초기 자금의 압박과 미흡한 마케팅 전략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때 산속의 불빛처럼 등장한 존재가 건국대 벤처창업지원센터였다. 입지조건과 기타 조건들이 딱 들어맞았지만 최우수 창업보육센터에 빛나는 건국대 벤처창업지원센터는 그 명성에 걸맞게 입주 경쟁 또한 치열했다. 이때 HGC의 탄탄한 기술력과

정직한 경영 마인드가 제 힘을 발휘했다.

“무사히 입주는 했지만 사업계획서 하나 짜면서도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언하고 수정해주는 일야늘상 받는 도움이고, 기술이 안 풀리면 그쪽 전문가의 지원을 끌어다 붙여주고 특허를 등록할 때는 믿을 만한 변리사를 소개해주죠. 센터의 도움으로 벤처 확인 인증까지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갚으려면 돈 벌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난 거죠.”

1999년 개소한 이래 신생 벤처들이 겪는 갖가지 고충을 덜어주며 꾸준히 진일보해온 건국대 벤처창업지원센터는 2년 연속 중소기업청 평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고 2006년 평가에서는 새로 신설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된 곳이다.

“저희가 2001년 일반대학원에 개설한 벤처비즈니스학과에는 졸업생을 합해 현재 약 200여 명의 IT전문가, 벤처기업 CFO, 벤처캐피탈리스트, 변리사 등이 있습니다. 벤처에 일가견이 있는 이 학생들이 센터에 입주한 기업



들과1대1 맞춤 컨설팅을 자처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와 비즈니스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죠.”

신생벤처들에게 필수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주는 벤처비즈니스학과는 건국대 벤처창업지원센터 최고의 성공 전략이라는 게 정지호 총괄 B매니저의 설명이다.

벤처비즈니스학과 외에도 센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입주기업을 위해 벤처창업 및 경영에 관한 강좌를 마련해 경영 실천 전략을 전수한다. 또 2000년부터는 벤처창업경진대회를 펼쳐 우승자에게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 벤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특특히 한 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센터는 최근 입주업체들의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스타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HGC의 양종석 대표가 예비 스타주자로 가담해 있다. 안전 불감증이 유난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유비쿼터스와 연계한 관리 기술을 응용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양종석 대표, 상생의 윈윈 전략을 펼쳐온 센터와 HGC 콤비가 버지않아 멋진 벤처 성공 신화를 일구어내기를 기대해 본다.

현대글로벌콘트롤 주식회사

- 대표 : 양종석
- 설립일 : 2003년 4월
- 인원수 : 7명
- 주요품목 : 화재, 건물 제어 및 콘트롤 설비
- 매출액 : 15억원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 신학협동관 705호
- 홈페이지 : www.hdcontrol.com
- 전화 : 02-462-2386

건국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주요지원 프로그램

- ◎ 경영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 경영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 및 법률 세무 운영 관련 자문 등
- ◎ 기술지원 | 전용장비 지원, 신기술 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성 지원, 기술 상품화 연계 지원, 교내 전문가 연계 등
- ◎ 일반대학원 벤처전문기술학과 운영 | 석박사 과정과 연계해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하고 실무자인 이 학과 학생들이 벤처 분야에 대한 창업 및 경영 지원 등 모범적인 산·학·관·연 협력 클러스터가 됨
- ◎ 재학생 창업경진대회 | 학교 자체 예산으로 창업 경진 대회와 창업 강좌를 운영해 우수한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운영 | 입주기업 중 우수한 업체를 선발하여 집중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코스닥 상장까지 지원
- ◎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MBS 센터) 운영 | 단독건물, 12개 업체, 건국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지원프로세스로 운영

건국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

- 센터장 : 유왕진(벤처전문기술학과 주임교수)
- 개소일 : 1999년 5월
- 주력분야 : 정보통신, 바이오
- 입주기업 : 24업체(운영률 95%)
- 홈페이지 : www.kkubi.ac.kr
- 전화 : 02-450-3138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